

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20.7.13.(월) 조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	담 당 자	김 영 준 사무관 (02-2100-2696)	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(02-3145-6770)		김 석 훈 팀장 (02-3145-6774)	

제 목 : 본인신용정보관리업(‘마이데이터’)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.

- 주요문답(Q&A) 및 허가 설명서(매뉴얼) 배포

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**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**를 진행합니다.(7.13.~8.4.)

I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

- '20.8.5.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**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**를 실시합니다.
- 이는 마이데이터 **예비허가 사전 신청**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**허가요건** 등을 검토하기 위함*입니다.

*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,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.5.이후 진행할 예정

<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·빅테크·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 · '20.5.13.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· 사업계획의 타당성,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

□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**최소 3개월**(예비허가 2개월, 본허가 1개월)이 소요되고, **1회에 최대 20개**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

* (예시) 1차 : 8월~10월, 2차 : 11월~1월, 3차 : 2월~4월 등

○ '20.5.13.*'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입니다

*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

<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>

-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'21.2.4.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(부칙 제7조)
-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'자유업'에서 '허가제'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

□ 허가심사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

○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, IT·보안,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.

II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

□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 **'20.7.13.(월) ~'20.8.4(화)**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○ 마이데이터 주요 Q&A 및 허가 매뉴얼*(별첨)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'20.7.13.(월)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, 업무자료)에도 게시

-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1차 허가심사(최소 3개월)가 완료된 이후,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<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>

일정	기한
1.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	'20.7.13.(월) ~ 8.4.(화)
2.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	'20.8.5.(수) ~

▶(제출방법)

1. 전자우편 : mydata@fss.or.kr (별도 회신 없음)
2. 우편·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(여의도역 2번 출구)

▶(문의) 02-3145-6784·6785, 6780(물적요건 관련)

- 별첨 : 1. 마이데이터 주요 Q&A
 2.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나부터 저자는 우리 모두의 건강 
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